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 제3차 에기본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하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탈원전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 등을 통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끊임없는 참호전(trench warfare)을 벌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탈원전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과 건설적인 논의는 실종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40여 년 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고질적인 저효율 다소비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석탄, 원자력 등 저렴한 발전원의 공급을 확대한 결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공급 구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이 국제적인 핵심 과제로 부상하여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우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방향 설정은 최근까지 유지해왔던 에너지정책의 기조에 대한 근원적이고 발전적인 비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고질적인 에너지다소비 구조는 어디에서 유발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반영해서 우리의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발전적인 논의를 접할 기회를 그동안 박탈당해왔다.

최근에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고민과 진통을 거쳐 도출한 권고안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국민의 변화된 수용성을 반영해서 기존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구조를 분산형 체제로 재편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석탄 발전을 점진적이면서도 과감하게 감축하는 전략을 명시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과 계통수용성 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문제와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가?

정부와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위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차분하고 단계적으로 합리적 수준의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해답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보다 성숙하고 생산적인 논의 구조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에너지원별 향후 역할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난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주도한 탈원전 논쟁 프레임을 과감히 탈피할 시점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가능한 빨리 개시되기를 기대한다.

